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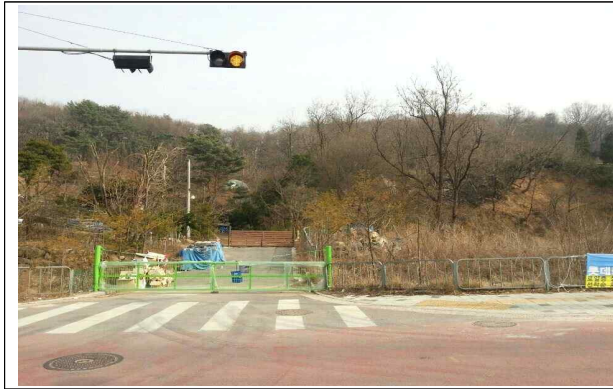
-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은 2016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어린이집의 옆집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어린이들의 소음, 통학 버스 및 학부모 차량의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풍기 소음(진동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수년간 고통을 호소했지만 환풍기를 교체하거나, 방음장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분쟁의 경과’ 참조)
- 신청인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자 합니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2015년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인하여 측량을 하자 진입로에 대문을 달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함

- 2015년 겨울 다른 진입로로 공사를 시작하자 ‘구청장님, 서울시장님, ○○어린이집 모두가 불법이다’라는 알 수 없는 모함의 글로 현수막을 걸어 업무방해, 명예훼손 시작



-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나쁜 감정도 없는 상황에서 왜 현수막에 모함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시키고 업무방해를 하는지 이해 불가. 2015년부터 현재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호소합니다.
- 2016년 ○○○씨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였음
  - ○○○씨의 2016년도 3회에 거친 거짓 고소로 본인 이경숙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음
  - 3회 모두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법원에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도 오고 가는 사람에게 그때의 거짓말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시키고 있음
  -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변호사의 말도 알고 있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 어린이를 보호해 주세요(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소음관련만 쓰려고 합니다)
  - 본 어린이집은 만1세부터 만 5세까지 200여명의 영, 유아가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매일 1시간씩 바깥 활동을 하여야 함이 의무사항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는 교사와

영유아에게 ○○○씨가 소리지르고 욕하는 내용에 교사가 울며  
억울함을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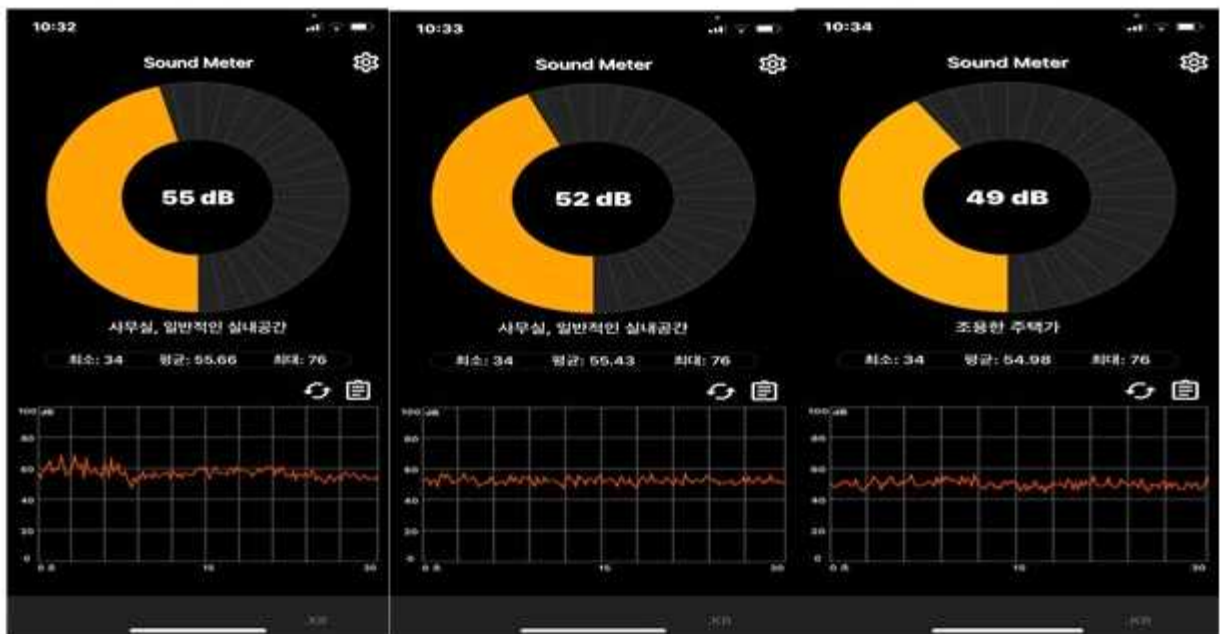
-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하여 2시간에 1회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업무 중인 원장님을 불러내어 애들 소리 시끄럽다고  
창문 닫으라고 함
- 매일 오전 간식/ 점심 식사/ 오후 간식을/ 원에서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리실에 환풍기를 가동시켜 공기를 순환시켜  
주고, 음식냄새를 빼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됨
- 환풍기는 아침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가동하며, 조리사님이 끄고 퇴근함.  
저녁시간에 가동하지 않으므로, 수면과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씨가 거주하는 집과 어린이집 건물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소리가 민원을 넣을 정도로 크게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저소음 환풍기이며 설치한 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되지  
않았으나, 교체해 볼 생각으로 전문가와 오래전에 상담했고 전적서도  
받은 상태임
- 매일 영, 유아는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낮잠 및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씨는 어린이 낮잠시간에 확성기를 종종 틀어 어린이들이 시끄러워  
낮잠을 설치게 되었음
- 어린이집 행사날은 확성기를 더 크게 틀어 업무방해를 함. 소음으로  
학부모가 할머니에게 따지려하여 원에서 말렸음
- 여름에 에어컨켜면 시끄럽다고 하십니다. 200여명의 영, 유아들이  
○○○씨 때문에 찜통같이 더운 교실에서 여름을 보내야 할까요?
- 영, 유아들이 눈에만 보이면 시끄럽다고 선생님과 어린이들에게  
욕설과 알 수 없는 말들로 교사는 기분이 나쁘고 어린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 하물며 어린이집 앞에 예쁘게 꽂아 놓은 바람개비 마저도 시끄럽다고

○○공원 담당자에게 뽑으라 해서 ○○○씨와 ○○공원 담당자 앞에서 처리해 드렸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학부모 400여명의 학부모님들께서 단체서명도 해주셨고 학부모님들의 단체 민원도 생각 중입니다.

○ 데시벨 측정은 ○○○씨의 일반적인 측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환풍기 바로 앞에서 10:32분. 33분. 34분 3회 측정 결과 >



- 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합니다.
  -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잠시의 정차시간에도 학부모의 차와 사람을 포함하여 사진을 찍어댐(초상권 침해라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며 법정 소송도 있었음)
  - 어린이집 행사 때는 밖에 나와 학부모를 상대로 어린이집 혐담을 하며, 거짓을 유포함(학부모가 항의하거나 말을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남)
  - 쓰레기를 치우러 온 재활용 청소업체, 택배, 공사차 등 어린이집 앞에 정차를 못하게 방해함(단, 본인의 동거인 차만 주차 허용)
  - 어린이집을 향하여 본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교사들과 학부모 등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 그 외 다수의 잦은 민원으로 구청직원, 경찰들을 수시로 출동시킴
  - 구청직원 및 경찰들의 출동이 기록됨을 알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어 본인 입장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경찰과 공무원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편을 든다며 화를 내고 험한 말을 함 (공무원을 고소도 함)
  - 2021년 또 현수막을 걸어 명예훼손, 영업방해, 업무방해함
- 고의로 하원 시간이면 종종 나오셔서 학부모님 들으라고 확성기 틀어 놓고 시끄럽게 함
- ○○○씨는 교사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으면 상습적으로 나와서 교사들도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모함을 하고 어린이집을 망하게 할거라고 합니다.
  - 신입 입학 앞 둔 학부모님은 옆집 주민의 소문을 들었다며 좀 걱정된다고 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들도 있음
  - 어린이집 입구는 공용 도로이지만 ○○○씨는 어린이집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아이들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원장을 불러 혼계하듯 혼내고 지시하며 업무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 이런 모습을 학부모님께서 보시고 원장님에게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 불과 며칠 전 3월 28일 (월) 5시경 신입원아의 학부모님 앞에서 내가 구청 갔다왔다 내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하며 협박을 했음
- ○○○씨는 ○○마을에서 드라마팀의 촬영이 있는 날이면 촬영장소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을 넣어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는 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대화하며 시정하고 잘 지내고 싶어 시도도 해 보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 ○○○씨의 상식밖의 행동에 여기 모든 어린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지요? ○○○씨는 상습적인 악랄한 민원으로 약탈을 하고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우리 어린이집의 200여명의 영, 유아들과 400여명의 학부모님들, 30여명의 교직원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님과 심사관님의 지혜로운 판정 부탁드립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며, ○○공원 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으로 상가 및 사업장 등의 생활소음원의 영향이 적은 정온한 환경이다.

### **나.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면 적 :  $1,243m^2$
- 지 목 : 전

### **다. 피신청인 영업 건물 현황**

- 건 물 명 : ○○어린이집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076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주 용 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2016. 3. 4.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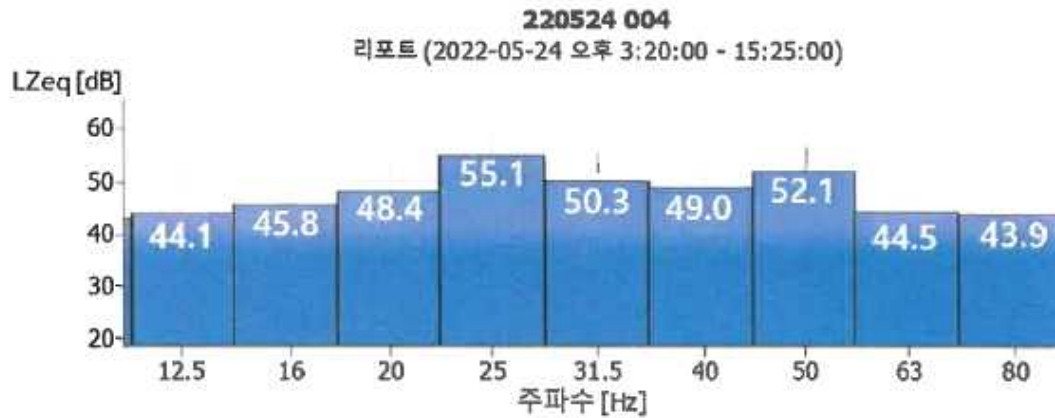
#### 가. 소음 피해 평가

- 피신청인의 소음원인 송풍기의 교체 전 측정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송풍기의 측정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로 사업장(송풍기) 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어린이집 송풍기 저주파 소음측정 결과
  - 일 시 : 2022. 5.24.(화) 15:10
  - 측정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장소 : 신청인 주택 앞
  - 측정구분 : 저주파소음 분석
  - 측정자료 분석결과

주파수 (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판단여부
기준 (dB)	85	82	78	73	65	59	56	50	45	
측정소음 레벨	44.1	45.8	48.4	55.1	50.3	49.0	52.1	44.5	<b>43.9</b>	기준이내
배경소음 레벨	42.5	44.2	43.9	51.4	51.6	50.3	50.3	42.1	37.9	
대상음압 레벨	평가 불가	평가 불가	47	53	평가 불가	평가 불가	평가 불가	평가 불가	평가 불가	

- 측정소음도 : 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
- 배경소음도 :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도
- 대상소음도 :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주파수별 음압레벨



## 4. 판 단

- 신청인 주택에서 저주파소음 측정결과 12.5~80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음압레벨이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피신청인 측의 현재 발생소음을 더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을 고려하여 소음저감설 설치를 권고한다.

##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